

992년 0월15일 목요일

한인사회 열기고조 정신대 인권 회복



▲미동부 한국 정신대 대책협의회는 13일 열린 모임에서 참석한 각계 대표들에게 정신대 문제 해결의 중요성을 환기시켰다.

미동부 대책협의회 한인회모임서 결의다짐

정신대문제와 관련 50여년전 일본으로부터 유린당한 여성들의 인권과 민족적 긍지를 회복하려는 한인들의 열기가 날로 뜨거워지고 있다.

미동부 한국정신대 대책협의회는 한인 각계가 힘을 모아 집결 일본정부에 대한 배상 및 사과를 통해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민족적 자존심을 되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했다.

뉴욕 한인회관에서 종교 및 대표들은 이날 저녁에서 14일 열리는 UN 인권위원회 총회에 보낼 탄원서에 서명하고 이와같은 역사가 다시는 재연되

지 않도록 힘을 모아 이번 기회에 문제를 해결하기로 뜻을 모았다.

김재택 뉴욕한인회장, 임형빈 상록회장 등의 격려사에 이어 진행된 이날 모임에서는 각계 참석자들이 정신대에 관한 각 자료를 통해 한인사회에 정신대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시켰으며 최홍경 변호사와 가수 양희은씨, 시인 김정기씨가 그 시대의 한이 담긴 노래와 시로 정신대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했고 마련된 정신대 여성들이 먹던 소금 주먹밥을 통해 당시 여성들의 뜻을 기렸다.